



# 정약용, 나쁜 관리를 꾸짖다

천개의바람 | 고진숙 글 | 이주미 그림

## 책 내용 상상하기

- 책 표지를 보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상해 보세요.
- 주어진 '핵심어'를 넣어 상상한 내용을 써 보세요.



<핵심어>

정약용

관리

목민심서

## 내용 파악하기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찾아 보세요.

1 다음에서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

- ① 좋은 집에서 태어나 공부도 잘했어요.
- ② 운이 나빠서 과거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어요.
- ③ 정조 임금의 재주를 아껴서 가까이 두었어요.
- ④ 정조 임금이 죽자 강진으로 유배를 갔어요.
- ⑤ 유배지에서 목민관의 길잡이가 될 《목민심서》를 썼어요.

2 다음에서 목민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해 보세요.



- 1) 목민관은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로, 사또 혹은 원님, 수령이라고도 해요. (        )
- 2) 목민은 백성을 돌본다는 뜻으로, 목민관은 백성을 돌보는 관리를 뜻해요. (        )
- 3) 목민관은 상민 중에서 어려운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관직이었어요. (        )

3 다음에서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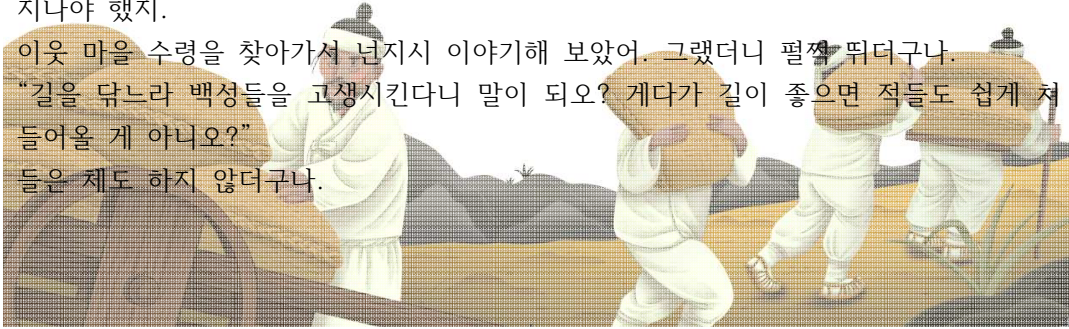
- ① 관아에는 아전과 군교, 노비, 문지기, 심부름꾼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 ② 아전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방으로, 목민관이 하는 일을 거의 함께해요.
- ③ 수령만 월급을 받았고, 관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 ④ 아전이 수고비로 받는 '인정'은 뭔가를 뜯어낼 수 있는 핑계가 되었어요.
- ⑤ 아전은 나라에서 보낸 관리였고, 수령은 마을에서 대대로 살던 토박이였어요.

- 4 다음에서 정약용의 생각과 이웃 마을 수령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들의 생각을 정리한 뒤,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써 보세요.

유형거를 써서 쌀을 옮길 생각이었어. 조금 큰 유형거는 소가 끌 수도 있어. 수레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높은 고갯길을 만나면 잠깐 등에 지고 옮긴 뒤 다시 수레를 이용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수레가 다니려면 길이 필요해. 우리 마을이야 농사철이 끝나고 한가할 때 백성들을 모아서 길을 닦게 하면 되지만, 나루터까지 가려면 이웃 마을을 지나야 했지.

이웃 마을 수령을 찾아가서 넌지시 이야기해 보았어. 그랬더니 펄쩍 뛰더구나. “길을 닦느라 백성들을 고생시킨다니 말이 되오? 게다가 길이 좋으면 적들도 쉽게 쳐들어올 게 아니오?” 들은 채도 하지 않더구나.



1) 정약용의 생각	2) 이웃 마을 수령의 생각

3) 나는 (정약용의 말, 이웃 수령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

- 5 다음에서 병방이 울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병방이 울상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지. 군포를 받는 아전은 옷감을 대충 훑어보고는 무조건 퇴짜를 놔. 옷감 품질이 나쁘지 않아도 걸레 취급을 하는 거야.

“이 군포는 못 쓰겠으니 다른 걸로 보내시오.”

누군가 귀뜸해 주는 말이 꼴불견이야.

“요 앞 옷감 가게에서 사야 받아 줍니다.”

알고 봤더니 감영의 군포 받는 아전과 옷감 가게 상인이 한패였지. 그 가게의 옷감은 품질이 훨씬 나쁜 데도 가격은 엄청 비싸. 병방이 머뭇거리면 상인이 으름장을 놓아.

“비싸다면 그냥 가시오. 여기서 산 옷감이 아니면 또 퇴짜 맞을 텐데...”

울며 겨자 먹기였지. 결국 비싼 옷감을 사느라 빚을 지고 말지.

.....

.....

6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선을 이어 보세요.

- |  |        |
|--|--------|
| 1) 조선에서 16세부터 60세까지 평민 남자라면 군대를 가거나 ( )을/를 해마다 내야 했어요. | ① 암행어사 |
| 2)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 ) 제도가 있어요.     | ② 관아   |
| 3) 지방에 보낸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시시때때로 ( )을/를 보냈어요.    | ③ 군포   |
| 4) 환자가 가난하여 약을 살 수 없으면 ( )에서 내주어야 한다고 《경국대전》에 나와 있어요.  | ④ 환곡   |
| 5)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는 수령이 죄인을 죽인 다음 뒤늦게 올리는 보고서를 ( )이라고 해요. | ⑤ 진상   |
| 6) 아전들은 ( )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게 보고서를 썼어요.         | ⑥ 이두   |
| 7) 임금에게 귀하고 좋은 특산품을 바치는 것을 ( )이라고 해요.                  | ⑦ 황첩   |
| 8) 조선에서 산삼을 캐려면 돈 3냥을 내고 ( )이라 불리는 자격증을 사야 했어요.        | ⑧ 물고장  |

7 다음 설명에 어울리는 물건의 번호를 써 보세요.

-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인 '호패'는 부역을 동원하는 데 이용됐어요. 부역은 나라가 시키는 일을 대가 없이 하는 걸 말해요. 부역은 백성들의 의무라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 )
- 복쇠라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25냥에 노비로 판다는 문서예요. 글자를 몰라서 이름 대신 부인의 손을 종이에 대고 그렸어요. ( )
- 마패는 관리가 지방에 갈 때 역참의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 준 패예요. ( )

①

②

③



---

## 책 감상하기

---

•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1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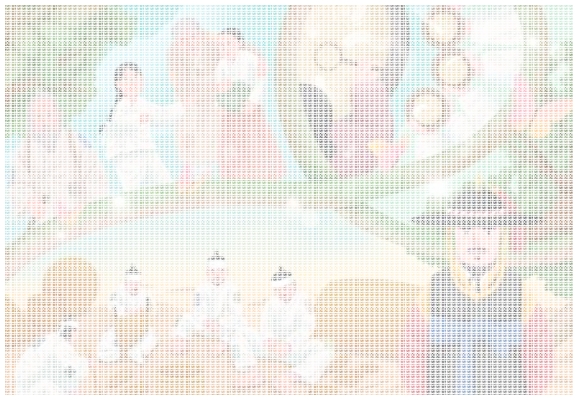
2 새롭게 알게 된 점

3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4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

5 앞으로 구체적으로 적용  
하고 싶은 내용

---



<1쪽>

(예)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편에 서서 나쁜 관리를 혼내 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정약용이 어떻게 하면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쓴 책이 목민심서인 것 같아요.

<2쪽>

- 1 ㉔
- 2 1) ○ 2) ○ 3) X
- 3 ㉕

<3쪽>

- 4 1) 정약용은 유형거라는 수레를 써서 쌀을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2) 이웃 마을 수령은 길을 닦느라 백성들이 고생하고, 길이 좋으면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 (예시) 나는 정약용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길을 닦는 것은 잠시 힘들지만, 쌀은 계속 옮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 5 군포를 받는 아전이 옷감 가게 상인과 짜고 군포를 무조건 퇴짜를 놓을까 봐 병방이 울상이 되었어요.

<4쪽>

- 6 1) ㉓ 2) ㉔ 3) ㉑ 4) ㉒ 5) ㉘ 6) ㉖ 7) ㉕ 8) ㉗
- 7 1) ㉓ 2) ㉒ 3) ㉑

<5쪽>

- 1 (예) 과거 조선시대 사회 문제와 오늘날 사회나 정치 문제가 많이 비슷해서 놀랐다. 잘못된 반 복되지만, 바로잡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2 (예)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유배지에서 썼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나라면 유배를 가서 힘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정약용은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책을 썼다는 사실 이 놀라웠다.
- 3 (예) 백성들이 세금에 시달려 자신을 노비로 팔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그 옛날에도 관리의 역할이 중요했고, 관리는 억울한 백성이 없게 노력해야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 4 (예) 정치가가 꿈인 친구들과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이 책을 읽어 보라고 소개하고 싶다. 그뿐 만 아니라,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 5 (예) 앞으로 내가 속한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면 목민심서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목민 관처럼 성실하고, 세심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싶다.